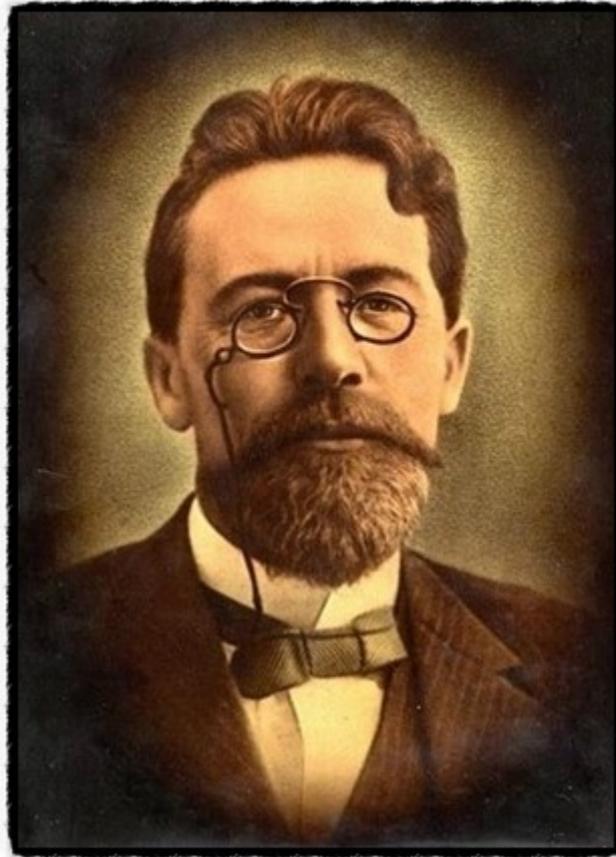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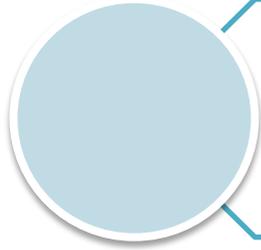


# 안톤 체홉 작품론

Антон Павлович Чехов  
(1860 ~ 1904)

# 안톤 파블로비치 체홉





# 생애와 연보

- 1860년 **출생**  
1월 17일 러시아 남부 아조프 해의 항구도시 따간로그에서 출생.
- 1876년 **16세**  
식료 잡화점을 운영하던 아버지가 파산하여 가족이 모스크바로 이주.  
체호프는 따간로그에 혼자 남아 가정교사를 하며 고학.
- 1879년 **19세**  
6월 따간로그의 중등학교를 졸업.  
9월 모스크바 대학 의학부 입학.
- 1880년 **20세**  
첫 콩트 <배운 이웃에게 보내는 편지>가 뻬제르부르그의 주간지 <잠자리>에 게재.  
이후 1887년까지 다양한 필명으로 생계를 위해 각종 잡지와 신문에 유머 콩트를 기고.
- 1883년 **23세**  
<굽은 거울>, <어느 관리의 죽음> 등을 발표.

- 1884년 24세  
6월 모스크바 대학 의학부를 졸업.  
브스끄레센스끄의 지방 자치회 병원에서 잠시 근무.  
12월 처음으로 객혈.  
첫 유머 단편집 <멜뽀메나의 이야기들>이 출판. 유머 단편 <마스크> 등을 발표.
- 1885년 25세  
5월 인상파 화가 레비탄을 만남.  
12월 <새 시대>지의 발행인 수보린과 친교를 맺음.  
단막극 <큰 길에서> 탈고.
- 1886년 26세  
2월 <새 시대>지에 단편 <추도회>를 처음으로 자신의 본명으로 발표.  
4월 두 번째 객혈.  
5월 <실패>, <애수>, <하찮은 것> 등이 수록된 두 번째 단편집 <잡다한 이야기들>이 출판.
- 1887년 27세  
4월 고향인 러시아 남부를 여행.  
세 번째 단편집 <황혼>이 출판.  
단막보드빌 <백조의 노래>, 장막극 <이바노프> 완성.  
11월 19일 모스크바 꼬르쉬 극장에서 <이바노프> 초연.

- 1888년 28세  
10월 단편집 <황혼>으로 뿌쉬킨상 수상.  
12월 차이코프스키와 교우.  
단막 보드빌 <곰> 발표.
- 1889년 29세  
6월 화가인 둘째 형 니콜라이가 폐결핵으로 사망.  
12월 <바냐 아저씨>의 토대가 되는 희곡 <숲의 정령>을 모스끄바의 아브라모바 극장에서 초연하나 혹평을 받음.  
단막극 <청혼>, <어쩔 수 없이 비극배우> 등을 발표.
- 1890년 30세  
4월부터 12월까지 시베리아를 횡단하여 사할린까지 여행.
- 1891년 31세  
3-4월 수보린과 함께 이탈리아와 프랑스로 첫 유럽여행.  
단막극 <기념식> 등을 발표.
- 1892년 32세  
3월 모스끄바 남쪽 멜리호보에 영지를 구입하여 이사.  
여름에 이 지역에서 콜레라가 유행하자 의사로서 방역활동을 함.  
11월 <6호 병동>을 <러시아 사상>지에 발표하여 커다란 반향을 일으킴.

- 1894년 34세  
3월 건강이 악화되어 알타로 가서 지냄.  
여름에 밀라노, 니스 등 남유럽을 여행하고 10월에 멜리호보로 돌아옴.  
<검은 수사>, <대학생>, <문학 교사> 등을 발표.
- 1895년 35세  
8월 돌스또이의 영지 야스나야 볼라나로 가서 돌스또이를 처음으로 만남.
- 1896년 36세  
10월 17일 장막희곡 <갈매기>를 알렉산드린스끼 극장에서 초연하지만 크게 실패함.
- 1897년 37세  
3월 결핵이 악화되어 모스끄바의 병원에 입원. 돌스또이가 문병함.  
<농부들>, <바냐 아저씨> 등을 발표.
- 1898년 38세  
고리끼와 교우하며 편지를 주고받음. 편지로 고리끼에게 소설 쓰는 방법을 가르침.  
8월 건강 때문에 알타로 이사.  
12월 17일 모스끄바 예술극장에서 <갈매기>가 공연되어 대단한 성공을 거둠.
- 1899년 39세  
10월 26일 모스끄바 예술극장에서 <바냐 아저씨> 초연.  
<새로운 별장>, <개를 데리고 다니는 부인> 등을 발표.

1900년 40세

1월 톨스토이와 함께 학술원 명예회원으로 선출됨.  
<세 자매> 탈고.

• 1901년 41세

1월 31일 모스크바 예술극장에서 <세 자매> 초연.  
5월 모스크바 예술극장의 여배우 올라 끄니삐르와 결혼.

• 1902년 42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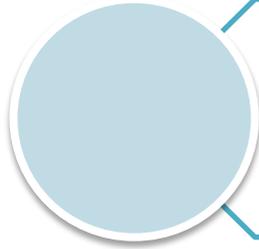
8월 고리끼가 학술원 명예회원 자격을 박탈당하자 이에 항의하여 자신도 명예 회원  
직을 사퇴함.

• 1903년 43세

10월 마지막 작품 <벚꽃동산> 탈고.  
체호프가 직접 자신의 작품들을 선별한 <선집>이 마르크스 출판사에서 간행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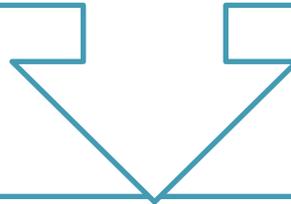
• 1904년 44세

1월 17일 모스크바 예술극장에서 <벚꽃동산> 초연.  
6월 병세가 악화되어 아내 끄니삐르와 독일의 바덴바일러로 요양을 떠남.  
7월 3일 바덴바일러의 호텔에서 새벽 3시에 영면.  
모스크바의 노보제비치 수도원 묘지에 묻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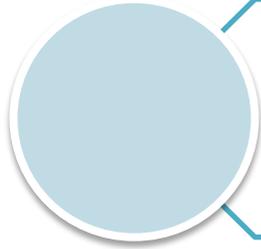


# 희곡작품의 특징

뚜렷한 외적 사건이나 갈등 없이,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을 통해 그들의 내면세계를 **객관적으로** 표현.  
강력한 사건과 갈등을 **의도적으로 분산**하거나 **은폐**.



등장인물의 **근본적인 갈등**은 인물 간의 작은 다툼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부조리함, 현실과 이상의 괴리** 등을  
개인적으로 인식한다는 데 있다.



## 평범한 인물

선인도 악인도 주인공도 조연도 없이,  
아무도 비난하거나 정당화하지 않으며

**다양한 인물 군상들을 동등하게 구성한다.**

# 독특한 대화체

침묵의 대화

반복의 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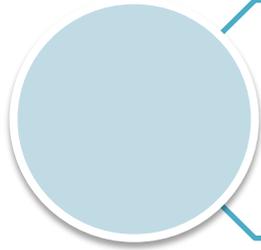
독백의 대화

사람들과의 단절,  
영원한 고독,  
서로에 대한 이해불가능성이  
삶의 보편적 현상이라고 봄

**“사실, 현실에서 사람들은 항상, 서로를 쏘거나  
목매달아 자살하거나 사랑을 고백하거나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은 항상, 분명한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  
않는다. 대부분, 그들은 먹고 마시고 배회하고  
무의미한 말을 한다.**

**그런데 무대는 이것을 보여 주어야 한다.  
희곡은 그 안에서 사람들이 오고 가고 식사를 하고  
날씨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카드놀이를 할 수 있게 씌여야 한다.**

**그것은 작가가 원하는 방식이기 때문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일어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 주제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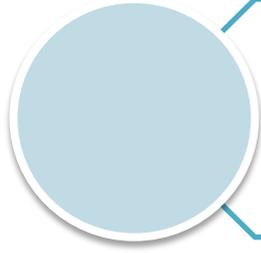
인간 개개인보다 **인생 그 자체가 주인공**

'웃음을 통한 눈물'

즉, 일상의 슬픈 희극성을 통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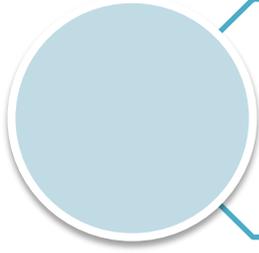
란 주제의식을 부각.



# 러시아의 이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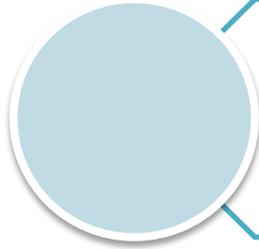
## 이름 + 부칭 + 성

- 이름: 러시아 정교의 성인의 이름
- 부칭: 아버지의 이름의 끝에  
남자 -오비치, -예비치  
여자 -오브나, -예브나
- 성: 가족의 성,  
여자의 경우 결혼하면 남편의 성을 따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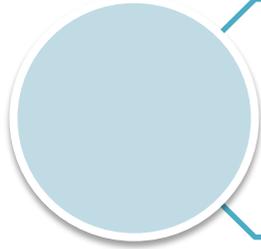
# <갈매기>의 이름

- 이리나 니콜라예브나 아르까지나, 남편 성을 따르면 드레블레바, 여배우
- 꾀스딴쨌 가브릴로비치 드레플레프, 그녀의 아들, 청년.
- 뽀뜨르 니콜라예비치 소린, 그녀의 오빠.
- 니나 미하일로브나 자레츠나야, 젊은 처녀, 부유한 지주의 딸.
- 일리야 아파나시예비치 샤므라예프, 퇴역 육군 중위, 소린 영지의 지배인
- 뽀리나 안드레예브나, 그의 아내
- 마샤, 그의 딸
- 보리스 알렉세예비치 드리고린, 소설가.
- 예브게니 세르게예비치 도른, 의사.
- 세몬 세모노비치 메드베젠꼬, 교사.
- 야코프, 일꾼.
- 요리사
- 하녀



## 4대 장막극의 공통 모티브

- 도착과 출발
- 주인 없는 공간
- 아버지의 부재
- 망가진 축제
- 기타



# 도착과 출발

## <갈매기>

1막에서 아르카지나와 뜨리고린의 도착/ 3막에서 떠남  
4막에서 니나의 가출과 귀향/ 아르카지나와 뜨리고린의 재방문

## <바냐아저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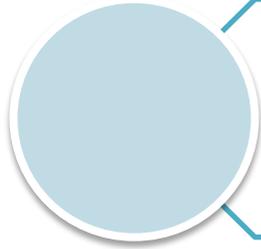
세레브라코프와 엘레나가 오고 나서 일상이 뒤흔들림.  
4막에서 그들이 떠남.

## <세 자매>

1막에서 베르쉬닌이 도착하고 4막에서 부대가 다른 도시로 떠남.

## <벚꽃동산>

1막에서 라네프스까야가 도착하고 4막에서 모두 뿔뿔히 헤어짐.



# 주인 없는 공간

## <갈매기>

공간은 소린의 영지이되, 돈도 영향력도 없음. 아르까지나에겐 잠깐 들르는 오빠의 영지. 뜨레플레프는 더부살이.

## <바냐 아저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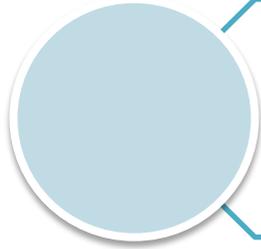
바냐와 소냐는 세레브랴코프를 위해 번 돈을 모두 뒷바라지하는데 사용. 그 영지를 팔려고 함.

## <세 자매>

안드레이의 도박빚으로 인해 가세는 기울어가고, 나따샤가 공간을 잠식함.

## <벚꽃동산>

영지는 빗더미에 올라가있고, 이자 갚는데 급급하며, 결국 로빠힌이 영지를 사들임.



# 아버지의 부재

## <갈매기>

드레플레프: 끼예프의 소시민, 일찍 사망

니나: 재혼, 엄격

마샤: 출생의 비밀

## <바냐 아저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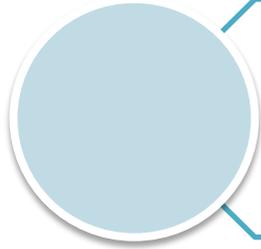
소냐: 어머니의 유산인 영지를 팔려는 아버지

## <세 자매>

세 자매: 극의 시작 전 일년 전에 돌아가심

## <벚꽃동산>

소냐: 아버지 사망, 어머니도 외국에.



# 망가진 축제

## <갈매기>

1막의 극중극이 아르카지나의 방해로 중단됨.

## <바냐 아저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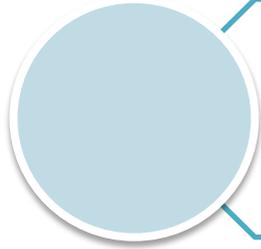
2막에서 세레브랴코프의 거절로 피아노 연주를 할 수 없음.

## <세 자매>

2막에서 나따샤의 방해로 파티가 무산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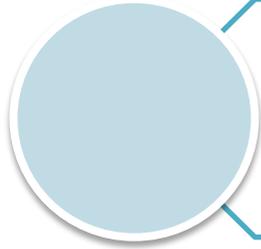
## <벚꽃동산>

3막의 무도회가 로빠힌이 영지를 사들였다는 소식에 망쳐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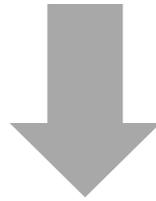
# 기타

- 보이지 않는 등장인물
- 몰락귀족/ 지식인/ 하인계급 등 다양한 계층
-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
- 피아노/ 기타 등 음악
- 노동의 중요성
- 의사의 등장
- 총의 등장
- 기타 등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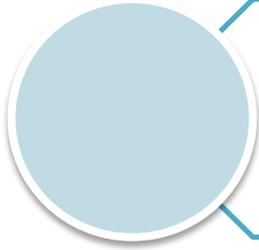


# 시/공간적 미학

'지금, 여기'라는 드라마 장르에 있어  
시간/공간적 제약



수용자에게 지각되는 정지된 듯한  
침체된 시간은 고립된 무대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인물들이 체험하는 급격한 변화의 시간은  
역동적인 무대 밖의 공간에서 이루어진다.



# 시간성

## <갈매기>

트레플레프의 극중극이 상연되는 무더운 여름으로부터 아르까지나 일행이 떠나는 여름의 끝(1막-3막), 2년이 흐른 가을 (4막)

## <바냐 아저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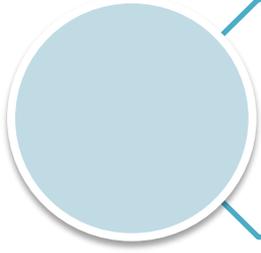
세레브라코프 교수 부부가 영지에 도착한 직후인 여름부터 그들이 떠나는 가을까지

## <세 자매>

이리나가 20세가 되는 명명일(5월5일)부터 안드레이와 나타샤 사이에 두 명의 아이가 생기고 이리나가 24세가 되는 약 4년 간

## <벚꽃동산>

라네프스까야 부인 일행이 도착하는 5월부터 영지가 팔린 8월을 지나 그들이 다시 떠나는 10월까지



# 순환하는 시간과 진행하는 시간의 마찰

## 순환하는 시간 (수용자가 지각하는 시간)

<갈매기>

해가 진 직후 - 정오 - 아침 - 밤

<바냐 아저씨>

오후 2시 - 밤 - 오후 1시 - 저녁

<세 자매>

정오 - 밤8시 - 새벽 2시 - 정오

<벚꽃동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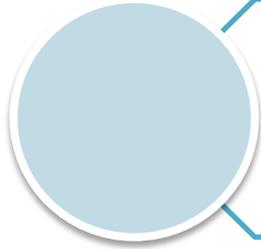
새벽 - 저녁 - 밤 - 낮

## 진행하는 시간 (인물들이 체험하는 시간)

등장인물들은 저마다 시간의 흐름을 민감하고 상이하게 체험한다.

그들은 끊임없이 지나간 과거를 회상하고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 언급한다.

그들의 삶의 토대가 현재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를 망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공간성

## <갈매기>

소린의 영지 내 정원, 크로켓 필드, 집 안의 식당, 응접실

## <바냐 아저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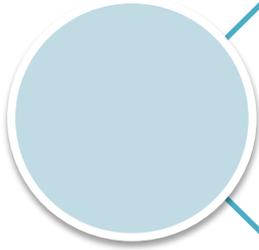
세레브라코프 영지 내 테라스가 있는 집의 일부가 보이는 정원, 집 안의 식당, 응접실, 보이니츠키의 방

## <세 자매>

프로조로프가의 응접실, 올가와 이리나의 방, 집에 딸린 넓은 정원

## <벚꽃동산>

라네프스카야 집의 어린이 방, 들판, 홀, 응접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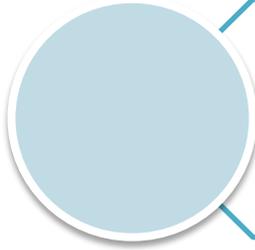
# 일상의 공간과 역사의 공간

## 무대 안의 공간 (폐쇄적이고 정적인 일상)

- 집 안과 밖의 교차로 이루어져 있지만, 동일한 공간에서의 협소한 이동의 인상을 창출하여 **인물들이 고립되어 있다는 인상을 준다.**
- 인물들은 이 폐쇄된 공간에서 **일상적인 행위를 하며 자주 지루하고 나태하고 정적인 삶에 대해 언급한다.**

## 무대 밖의 공간 (거칠고 역동적인 현실)

- **드레플레프의 자살, 투젠바흐와 솔료느이의 결투, 화재, 영지경매 등의 극적인 사건은 항상 무대 밖에서 일어나고 있다.**
- 무대 밖의 공간은 항상 무대 안의 공간을 위협하고 자극하고 충돌하며, **정적이고 단일한 무대의 공간성을 파괴한다.**



## 같은 작품, 다른 프리덕션

### <벚꽃동산> 중 마지막 장면

텅 빈 무대. 모든 문을 잠그는 소리, 이어 마차가 떠나는 소리가 들린다. 정적 속에서 도끼로 나무 찍는 둔탁한 소리가 쓸쓸히 구슬프게 들린다. 발소리가 들린다. 오른쪽 문에서 피르스 등장. 늘 그렇듯 정장에 흰 조끼 차림, 구두를 신고 있다. 그는 아프다.

#### 피르스

(문으로 다가가서 손잡이를 만진다) 잠겼군. 떠나셨어..... (소파에 앉는다) 나를 잊으셨군..... 괜찮아..... 여기 좀 앉아야지..... 한데 레오니드 안드레치는 털 코트를 안 입으시고 그냥 코트 차림으로 가신 것 같아..... (걱정스러운 듯 한숨 쉰다) 내가 봐드리지 못했으니..... 젊은 사람들은 정말! (뭔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린다) 산 것 같지도 않은데 한평생이 다 갔어..... (눅는다) 좀 누워야지..... 기운도 하나 없고, 아무 것도 남지 않았군, 아무 것도..... 에이, 이런..... 바보! ..... (미동 없이 누워있다)

마치 줄이 끊어지는 구슬픈 소리가 하늘에서 울리는 듯 멀리서 들리다 사라진다. 정적에 잠기며 멀리 동산에서 도끼로 나무를 찍는 소리만 들린다.

벚꽃동산 1976

<http://www.youtube.com/watch?v=qPGwlusfgm4>

벚꽃동산 말리극장

<http://www.youtube.com/watch?v=cywzCUVMg8s>

2006 소브르멘스키

[http://www.youtube.com/watch?v=\\_BpZPa-5SFQ](http://www.youtube.com/watch?v=_BpZPa-5SFQ)

벚꽃동산 2011 러시아

[http://www.youtube.com/watch?v=\\_9X-BX475m4](http://www.youtube.com/watch?v=_9X-BX475m4)

“내가 두려워하는 사람은, 행간에서 경향을 찾아 나를 자유주의자니 보수주의자니 하고 확고하게 규정 지으려는 자들이다. 나는 자유주의자도 보수주의자도 점진주의자도 성직자도 무신론자도 아니다. 나는 그저 단지 자유로운 예술가이고자 한다.”

“나는 거짓과 모든 형태의 폭력을 증오한다... 내게 가장 신성한 것은... 모든 형태의 거짓과 폭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다. 이것이 내가 위대한 예술가라면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강령이다.”